

# 북한의 '문화어', 표준어와 동질성 강해

## 신현숙교수,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의 언어현상」서 분석

남·북 언어의 이질화현상이 일부 학자 또는 식자층 사이에서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가운데, 북한의 공용어인 '문화어'와 남한의 공용어인 '표준어'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두드러진다는 당연한(?)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申鉉淑교수(상명여대 국어교육학과)는 북한의 '정부기관지'인 일간「로동신문」(86.12.15~87.6.15)을 언어학적으로 분석, 이른바 문화어와 표준어의 차이를 규명하는 논문을 발표했다(「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의 언어현상」·「한글」제200호기념특집·한글학회). 신교수는 이 논문에서「로동신문」에 쓰인 문화어의 형식·의미·용법이나 음운·형태소·문장이 표준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이 훨씬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 형식·의미·용법에 큰 차이 없어

우선 문화어의 형식이나 의미·용법이 표준어와 같아 전혀 차이를 느낄 수 없는 경우로, 신교수는 다음의 예를 들었다.

-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 △우리나라에 대하여 소개하는 장면들이 담겨져 있다.
- △두루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새의 하나이다.
- △수많은 수영선수들이 자라나고 있다.
- △해마다 바쁜 농사철에는 어김없이 달려와 성심성의로 농사일을 도와주었다.
- △인사가 늦어서 미안합니다.
- △기름이 새지 않게 만들어 놓았다.
- 이들 문장은 표준어와 문화어의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을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예로서, 이밖에도 많은 자료가 나타난다.
- 반면, 형식은 같으면서도 의미나 용법이 표준어와 차이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의미가 비뚤으로써 용법이 달라졌거나, 아니면 용법이 다르다보니 의미가 바뀐 예다.
- △무슨 일이나 '성급히' 해내지 않고는 못 배긴다.
- △강한 지진에도 안전이 '담보'되도록 건설하는...
- △'이악한' 노력으로...
- △너를 '배워주고' 키워준 은덕을 잊지 말아라.
-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고...
- 윗글에서 '성급히' '담보' '이악한'은 표준

어이지만 그 의미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로동신문」에서는 '성급히'나 '이악한'을 칭찬하는 형식으로 쓰고 있다. '담보'는 표준어의 '보장'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으며, 표준어에서처럼 '돈을 빌릴 때 물건(집·땅)을 잡힌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악한'은 표준어에서는 '지나치게 극성스럽다'는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다. 또한 '배워주고'는 표준어와는 달리 '가르쳐준다'는 뜻으로 쓰이고, '소행'은 표준어에서 주로 '소행이 꽤셈하다'는 식으로 쓰이는데 반해 그들은 '좋은 행동'을 가리키는 데 쓰이고 있다.

이런 예는 "주민의 대다수가 일정한 교육 체계에 '망라'되었다/인민들의 '북리향상'을 위한/침략자들을 '철거'시키고..." 등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중 '북리향상'은 표준어에서는 '북지향상' '북리증진'이라는 두 형식으로 쓰인다.

"바위들의 '녹여각기작용'에 의하여/과학자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며..." 등의 경우, 표준어에서는 각각 '침식작용' '한술밥'으로 쓰인다. 그러나 이런 형식은 표준어에 없는 것은 아니므로 형식이 같은 자료로 묶을 수 있다.

"날을 '따라' 더욱 두터워지고/그는 현장에 도착하자 '바람으로'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하였다"는 표준어에서는 각각 '날마다' '도착하자마자'로 쓰이는 표현이다. 특히 후자는 '식전땀바람으로'와 같은 형식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것들은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쓰임새가 다르다.

"의사를 '방조하여' 환자를 소생시켰다/우리나라에서 축구는 '파악'이 있고 전망이 있는 체육종목/출근부에 '수표'하던 날" 등에서 '방조하다'는 '여러가지로 도움을 주다'라는 뜻이며, '파악이 있다'는 '능력이 있다', '수표하다'는 '손으로 표시하다·사인하다'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표준어에서는 '방조하다'는 '그대로 버려두다(나쁜 일을 거들어 도와주다)'로, '파악이 있다'는 '파악하다'라는 형식으로 쓰인다. 이는 형식은 같으나 의미에 차이가 있고 따라서 용법도 달라진 경우이다.

### '두음법칙' 무시하고 '사이ㅅ' 생략

윗글들과는 반대로, 형식은 차이가 있으나 의미·용법이 같기 때문에 표준어와 쉽게 관

### 북한의 문화어는 형식·의미·용법에서

표준어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을 나타내주는

자료가 훨씬 많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한자어의 복합형식이

많이 쓰이며 '전투성' '사상성'이

언어생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지만, 그렇다고

동질성을 크게 해칠 정도는 아니다.

련지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립춘부터 립하 전달까지/리로온 짐승들/젊은 녀인/민족적 뉴대' 등은 표준어의 두음법칙이 문화어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련차(열차)·력력히(역력히) 룡성번영하는(융성번영하는)·려관(여관)·랑비(낭비)·라침관(나침반)·랭기(냉기)·래일(내일)·로력(노력)·녀성(여성)·력사(역사) 등등은 문화어가 평안도 방언의 음운규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는 곧 정치의 중심인 '평양'이 언어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런 특징은 '받침'에서도 현저히 드러난다. 즉 표준어에서 쓰이는 받침이 문화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사이ㅅ'의 생략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예를 들면, 비발치는(빗발치는)·쇠바줄(쇠밭줄)·이몸(잇몸)·바다가(바닷가)·비물(빗물)·뒤자리(뒷자리)·저가락(젓가락)·차집(차집)·후날(훗날)·햇불(햇불) 등등은 '사이ㅅ'이 생략된 예이다.

이밖에도 된소리현상이나 거센소리현상을 막기 위해 자음이 교체된 예도 많다. 이빨(이뺨)·근기있게(끈기있게)·잠깐만(잠깐만)·색갈(색깔)·알아줄가(알아줄까)·홀렸을가(홀렸을까)·끌어안다(끌어안다)·덩치(덩치)·웃동(웃통)·추어올리다(추켜올리다) 등등, 표준어에서 나타나는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문화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의미와 용법에서 표준어와 차이가 없다.

이는 받침으로 인한 된소리나 거센소리 현



申鉉淑교수

상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거칠게 만든다는 언어순화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면 언어순화에 역행되는 속어·비어 등이 많이 쓰이고 있음을 본다.

### 군대용어의 일상화로 강한 인상 줘

자음의 교체현상과는 달리, 모음교체로 인해 형식이 달라진 예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장만되'여' 갔다/드디'여'/생각갈'애'서는/건'느'다/진렬대 앞으로 '바루' 다가갔다/남산재 '우'에" 등. 이는 표준어와는 다르지만 개인이나 지역방언에 따라서 함께 쓰이기도 하는 형식이다.

한편 "어제날/저저마다/그 나날에" 등, 같은 의미를 지닌 형식을 중복해서 쓰기도 하고, 호상존중(상호존중)·식의주(의식주)·장성속도(성장속도)와 같이 순서를 바꿔쓰기도 한다. 그러나 이해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다음은 표준어와 형식·의미·용법이 달라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려운 경우이다.

'생똥같은' 거짚을 꾸며내어/‘검질긴’ 추격전/그는 ‘생눈길’을 헤쳐가며/나와 ‘딱친구’인 옥철동무/사람들의 ‘일본새’를 남김없이 발휘/어깨를 들이밀고 ‘세관계’ 일을 내밀었다/노래는 ‘웅글게’ 떠떠떠떠 이어지고 있었지만/막상 이 목표를 수행하자고 보니 ‘조련한’ 일이 아니었다/말을 선뜻 떼지 못하고 ‘바재이느’ 그들...

그러나 이것들도 표준어나 한자어에 관심이 있으면 앞뒤 문맥으로 미루어 그 뜻을 대체로 짐작할 수 있으므로,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하다.

한편 북한에는 그들의 사회구조나 정치구조를 드러내는 말들이 많다.

무대 '지령' 체계가 현대화되어 있어 공연 흐름은 '문답초소'를 아담하게 잘 꾸려놓고/ 좋은 노래를 창작하기 위한 '투쟁'/'원료기지'를 꾸릴 결심으로 도라지, 두릅을/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고 '후방조건'까지 보장...

윗글에서 '지령' '문답초소' '원료기지' '후방조건'은 각각 '감독' '상담실'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밥' '후생시설'에 대응된다. 이밖에도 '모내기전투' '수술전투' '영농전투' 등등 군대용어가 북한의 문화어에서는 그 쓰임이 다양하게 확대되어 생활전반에 걸쳐 쓰이고 있다. 이 때문에 문화어에서 받는 인상이 전체적으로 강하게 느껴진다.

#### 변화하는 외래어 · 한자어 정책

외래어나 한자어의 경우도 흥미롭다. 먼저 외래어의 경우, 북한의 주체사상과 관련하여 외래어가 쓰이지 않으므로써 북한의 언어정책이 성공한 것처럼 흔히 알려져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홀 · 인테리 · 아빠트 · 미싸일 · 프로 · 안삼불 · 땅크 · 또락또르 · 라지오 · 뽀프 등 외래어가 「로동신문」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물론 남한에 비해서는 적게 쓰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1986년에 출판된 「문화어 학습」에 “외국어 학습을 생활화하여야 하겠습니까. 외국어는 늘 써버릇해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앞으로는 외래어의 쓰임이 좀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즉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던,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꾸려는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자어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고유어가 한자어보다 우세할 뿐만 아니라 한자어는 거의 없어진 것처럼 알려져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양고운 주단/나이 지숙한 노동자/우점을 본받아야/불면불휴의 노력으로/통일을 고창하는” 등의 예에서 보듯, 표준어에서는 고유어로 된 형식이 오히려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한편 표준어에서도 한자어로 쓰이는 것인데 그 형식에 차이가 있는 등, 매우 다양한 한자어 조어법을 보이고 있다.

예술활동과 '직관물'(시청각자료) 등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동약(한약) 생산을 늘이는 것은/모내기 들어설 '만단'(만반)의 준

비를/한푼의 돈이라도 '분한있게'(규모있게) 쓰기 위하여/자기 일에 심혼을 바치는/폭력으로 가로막은 '악귀'같은 자들.

그런가하면 “올해를 만풍년으로 빛내이기 위한/최우등을 기록한 성적/연구과제의 중대성으로 해서 소심성에 사로잡혀/농장적으로/방향각을 밝혀주신” 등에서처럼 한자어 접두사나 접미사의 쓰임이 다르거나, “모든 후과(결과)에 대하여/교예공연(예술공연) 역시 훌륭하다/비굴무쌍한/사시절 찬물이 쉬임없이 흘러나오고/같이 일하면서 해설설복도 하고/열백번 목숨을 바치는/통일을 일일천추...” 하는 식으로 낱말의 복합형식이 흔히 쓰이고 있다. 그러나 표준어와 유사점에 많아,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앞서의 「문화어 학습」에 “우리는 한자말을 될수록 쓰지 않도록 하면서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한자를 대주고 그것을 쓰는 법도 가르쳐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자를 전혀 쓰지 않으려는 정책은 아님이 분명하다.

#### 언어표현에 '사상성' 반영돼

신교수는 이밖에도 흉내말을 비롯한 갖가지 낱말들이나 형태소의 결합방식, 문장의 구조나 표현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끝에 ①표준어와 문화어는 형식 · 의미 · 쓰임이란 기준에서 볼 때 이질정보다는 동질성을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훨씬 많고 ②음운 · 형태소 · 단어 · 문장의 층위에서 비교해봐도 다른 점보다는 닮은 점이 많으며 ③문화어로 된 문장은 대체로 길이가 길고 표현방법에도 차이가 있지만 문장의 구조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표준어와 문화어의 관계를 이질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의 사회구조가 동적인 구조이므로 언어표현이나 언어생성도 동적인 의미를 지닌 형식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북한에서는 '전투성' '사상성'이 중요하므로 이같은 성질이 언어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신교수의 가설이다.

#### 작품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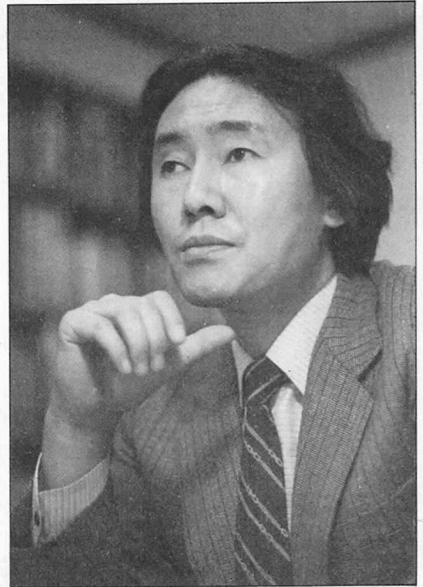
## 타인의 삶을 산 한 인간의 고백

장편 「時間의 뿌리」

梁文吉

소설가

법적으로 자신을 죽이고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둔갑을 한 한 사나이의 일생을 통해 시대와 인간, 진실과 거짓의 근원을 캐보고자 한다.



한 2년 전인가보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 막살하고, 고생 좀 할 각오로 자료를 모으고, 열개를 짜면서 부분적인 묘사를 진행시켜온 장편소설감 하나가 있었다.

결국은 직장을 때려치우기는커녕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는데, 이 작품만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완성시켜야겠다는 일념에서 요즘도 끙끙거리고 있다.

자기자신에 대해서는 사망신고를 해놓고 6.25직전에 행방불명된 의학박사 학위까지 있는 의사로 둔갑해서, 13년 동안 군의관으로 복무한 뒤, 제대 후에는 버젓이 개인병원까지 개업했던 가짜의사가 3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가짜라고 폭로하는 한 사나이의 이야기이다. 6.25가 발발하기 직전, 남쪽 시골의 작은 병원에서 조수 노릇을 해온 20대의 이 사나이는 어찌 너머로 의술을 배우게 된다. 우연한 기회에 생사를 알 길이 없는 어떤 의사의 신원을 상세히 알게 된 이 사나이는,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꾸며 사망신고를 내고 호적에서 지워버린 다음, 행방불명된 의사의 고향 함경남도 함흥의 가호적을 얻어낸다.

법적으로 자신을 죽이고, 또 법적으로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둔갑을 한 이 사나이는 의사면허증까지 발급을 받게 된다. 1950년 8월경 6.25전쟁이 치열해지자 이 사나이는 군의관으로 입대한다. 전쟁의 와중에서 병원조수로 익힌 어찌너머 의술을 갈고 닦은 이 가짜 사나이는 마침내 숙련된 의사로 성장하여 13년간이나 군의관으로 재직할 끝에 60년대에 들어와서 소령으로 제대를 한다.

제대 후에는 진짜의사가 받았던 S대 의학박사 학위증까지 얻어내서는 의학박사

노릇을 하며 개인병원을 개업, 의정한 병원장으로 살아간다.

철저하게 타인의 삶을 살면서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이 가짜의사는 인생의 정상에 올라갈수록 점점 알 수 없는 허탈감에 빠지기 시작한다.

30여년간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온 끝에 그가 얻은 것은 부와 명예 뿐이라는 생각, 자신의 본래의 삶을 잃어버렸다는 회의에 빠지면서 갈등의 나날을 지새우게 된다.

자신의 내부에서 불안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이 반란으로 말미암아 그는 마침내 가족과 사회를 등지고 시골에 파묻힐 결심을 한다. 한적한 산골에서 드디어 그는 자신이 살아온 가짜의 삶을 고백하는 녹음을 육성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 소설의 서두를 이룬다.

해방과 6.25를 거쳐 60년대와 70년대에 이르기까지 거졌인생, 가짜의 삶, 타인의 몫을 짊어져 온 한 개인의 삶의 족적을 통해 시대와 인간, 인간 양심의 문제, 진실과 거짓의 근원을 캐보려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라 할 수 있겠다.

약 1,500매 정도의 분량으로, 1인칭과 3인칭의 복합구성으로 엮어갈 계획이다.

그동안 주로 단편과 중편에만 매달려왔던 자신의 스타일에서 과감히 변신을 시도하여 스토리텔링과 구성의 묘미, 視點의 독창성을 살릴 야심으로 당분간은 이 작품 하나에만 매달릴 작정이다.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려 집을 꾸미듯 부분을 조립하여 하나의 小宇宙를 만들겠다는 것이 현재의 욕심이다.